

## 정규 규격 갖춘 주민 여가·스포츠 종합문화공간

**기업체부문 은상** [스포츠 시설] (주)하이필드 - 케이 풋살파크(풋살 경기장)

‘미니축구’인 풋살은 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다. 화성 협성대학교 안에 있는 (주)하이필드의 케이-풋살파크는 이런 풋살을 할 수 있는 전용 경기장이다. 지역 일대에 정규 규격(20m × 40m)의 풋살 경기장이 조성된 것은 케이-풋살파크가 처음이다.

이곳에는 정규 규격을 갖춘 풋살 경기장이 무려 37개가 있다. 제대로 풋살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다 친환경 인조 잔디, 층급속이 없는 인필칩을 사용해 풋살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음료를 판매하거나 공, 풋살화, 조끼를 대여해주는 부대시설도 바로 옆에 갖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공과 팀조끼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주차가 편리한 점도 장점이다.

단순히 풋살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휴게 공간을 마련해 풋살



을 즐기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이곳을 찾아 휴식을 취한다. 경기지역 주민들의 여가·스포츠 문화 공간으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케이-풋살파크의 조성 취지인데 이런 점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데, (주)하이필드는 이곳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풋살 대회와 운동회 등을 열고 있다. 무료 축구 클래스 등도 진행한다.

## 한겨울에도 멀리서 ‘평냉’ 맛보러 원정 줄이어

**기업체부문 은상** [로컬푸드] 도선재 - 도선재 청평 냉면

평양냉면은 마니아층이 두터운 음식이다. 땀송땀송한 듯한 육수 속 미묘하게 육향이 느껴지는데, 개운하면서도 감칠맛이 난다. 툇북 끊어지는 메밀면의 투박한 듯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지면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가평의 ‘도선재 청평 냉면’은 이런 평양냉면을 파는 집이다. 냉면은 본디 겨울철 음식이었는데,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론 한겨울에도 도선재 냉면을 맛보러 원정 오는 ‘평냉’ 마니아들이 적지 않다.

도선재의 김경원 대표는 평안도 덕천 출신인 외할머니로부터 평양냉면 비법을 전수받았다. 외할머니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도선재의 또 다른 대표 메뉴는 한우 떡갈비인데, 이는 도선재 대표가 전남 담양에 있는 차가에서 전수받은 것이다. 시원하고 개운한 평양냉면과의 조합이 홀



통해 소비자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평양냉면 맛집으로만 소문난 게 아니라 떡갈비 맛집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반도 북녘과 남녘의 음식이 가운데

의 맛집으로 거듭나게 한 셈이다. 온면, 양지곰탕, 차돌우거지탕, 도가니탕 등의 메뉴도 준비돼있다. 고즈넉한 한옥에, 드넓은 정원 역시 음식점에 들어선 소비자

## 기미·여드름에 흉터 치료까지 주력 항생제 의존보다 모낭충 박멸 병행

**기업체부문 히트상** [의료] 연세H의원 - 기미·여드름치료

티 없이 맑은 피부를 갖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바람이다. 기미, 여드름은 깨끗한 피부의 ‘적’처럼 여겨지는데 수월



시영통구에 있는 피부 전문 병원 연세H의원은 이런 기미, 여드름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다. 현재 있는 여드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흉터 등을 없애는 치료에도 주력한다.

점이나 잡티 등을 제거하는 CO2 레이저와 얇은 층 색소를 효과 좋은 선택 IPL 레이저, 깊은 층에 있는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토닝 레이저 등 여러 레이저를 활용해 환자 피부 상태에 맞춰 다양하게 치료한다.

과도하게 치료해 오히려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게 연세H의원의 방침이다. 이는 먹는 약, 바르는 연고 등을 처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염증을 없애기 위해 항생제를 과하게 처방하기 보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모낭충을 하나하나 박멸하는 치료를 병행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피부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게 연세H의원의 측 설명이다.

수원지역은 물론 용인, 화성시에서도 기미,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이곳을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피부과 외 성형외과·비뇨기과 진료도 가능하다.

## 곡선 돋보이는 디자인... 특허등록 건축자재 신경 써 단열·난방 개선

**기업체부문 히트상** [주택건축] 일흥컨테이너 - 전원주택·농가주택 이동식하우스

세컨하우스가 꾸준이 인기를 끌면서 이동식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에 제동이 걸리자 많은 이들이 국내 여행지로 발길을 돌리는 한편 도심에서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기 위한 자연 속 전원주택에도 시선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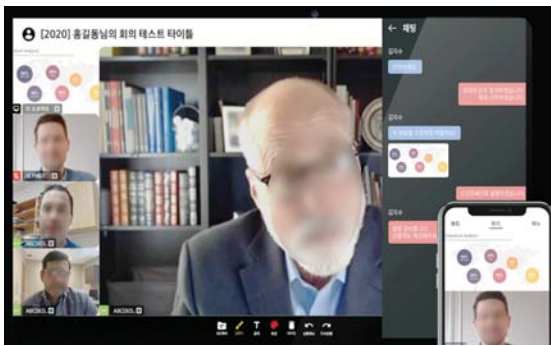
일흥컨테이너는 이런 이동식 주택을 만드는 회사다. 단층의 작은 주택부터 2층에 거대한 크기까지, 이동식 주택이지만 그 크기와 디자인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일흥컨테이너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일흥컨테이너의 이동식 주택은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핵심인데, 일부 주택 디자인은 별도로 특허청에 등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데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고려해 원하는 대로 주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주택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건축 자재에 신경을 써 단열·난방 문제를 개선한 점도 특징이다. 전국 각지에서 일흥컨테이너의 이동식 주택을 찾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책임 시공도 한 몫을 한다.

##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차별화 클라우드 서비스로 회의자료 관리

**기업체부문 히트상** [정보통신] (주)인더헨즈 - GRIDBOARD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아진 프로그램은 단연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저마다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내용을 공유했다. 수출 길



이 막힌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와 소통을 이어가는 데도, 유치원과 학교로 등원·등교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가는 데도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핵심 역할을 했다.

주식회사 인더헨즈의 ‘그리드보드(GRIDBOARD)’는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편리한 온라인 보드 서비스’임을 앞세웠다. 호스트가 화상회의를 개설하면 참석자는 입장 코드만으로 회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하거나, PC에 띄운 화면 및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참석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등 비대면 화상회의에 필요한 기능을 빠짐 없이 갖췄다. 다른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회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동된 클라우드에 회의 자료를 업로드 해두면, 이를 다음 비대면 화상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의 때마다 일일이 자료를 찾지 않아도 되는 점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 인체 안전 ‘산화 아연’ 제품에 접목 색·질감 구현 인테리어 효과도 우수

**기업체부문 히트상** [실내 인테리어] (주)썬코코리아 - 데코린 항균 방염 인테리어 필름

코로나19 사태로 항균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썬코코리아의 ‘데코린 항균방염인테리어필름’은 이런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 항균에 특화된 제품이다. 지난 8월에 출시했는데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항균 기능이 탁월한 산화아연을 필름에 접목한 게 핵심이다. 여기에 방염 성능도 갖춰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길의 커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외부 오염물이나 화학세제에도 비교적 강하다. 그러면서도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단순히 항균 기능을 높이는 데만 주력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놓치지 않도록 유명 친환경 페인트인 벤자민무어의 색감, 질감 등을 그대로 구현했다.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쁜 필름을 부착하기도 하는데, 데코린 필름은 인테리어 효과에 더해 항균·방염기능까지 갖춘 일석삼조 제품인 셈이다.

바닥 필름으로 시공할 때 기존 바닥재를 철거하지 않고 바로 시공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는 바닥재 철거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내구성이 좋아 인테리어 마감재로 시공한 후에도 오랜 기간 질감 연출이 남아있다는 게 썬코코리아 측 설명이다.

## AI가 직원처럼 예약응대·정보제공 효율성 증대 병원 브랜드 가치 향상

**기업체부문 히트상** [인공지능 AI] (주)와이즈에이아이 - AI 직원 SSAM·AI 비서 AIME

24시간, 365일 바쁜 병원. 사람은 없는데 실세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누군가 응답한다. 수술을 앞둔 환자에는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환자가 질병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적절한 콘텐츠를 찾아 답변한다.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회진 시간을 알려주고 청소를 하기도 한다. (주)와이즈에이아이의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인 ‘SSAM(Solution & System for AI MUNDI)’이 적용된 병원의 모습이다.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탑재, AI가 마치 병원 직원처럼 예약 전화에 응대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진은 SSAM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자 정보를 쉽게 데이터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로봇, 페이지, 콜, 소프트웨어, HQ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업무 효율성 증대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병원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게 와이즈에이아이 측 설명이다. 와이즈에이아이는 한발 더 나아가 올 전문 AI 서비스인 AIME도 개발했다. 일종의 ‘AI 개인비서’로, 걸려오는 전화를 대신 받거나 전화를 대신 걸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비대면 마라톤 ‘순위·기록’ 플랫폼 패턴 축적 지속관리 참가자 소통도

**기업체부문 히트상** [생활스포츠 서비스] 로드스포츠 - MMH(My Marathon History)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이 비대면 형태로 바뀌었다. ‘이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거야’ 싶었지만 예상 외로 비대면 방식이 금세 안착한 것 중 하나가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원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다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달렸을 때와는 다르게, 긴 구간을 홀로 뒤편 동력이 쉽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로드스포츠의 ‘MMH(My Marathon History)’는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베투출 마라톤 플랫폼이다. 주기적으로 마라톤 참가 신청을 받는데, 주어진 기간 내 참가자가 자유롭게 달린 후 기록을 MMH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폴코스 와 하프코스, 10km, 5km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가자들 중 자신이 몇 등인지, 다른 참가자들의 기록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원시 참가자 중 나는 몇 등인지, 등갑인 참가자들 중 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참가자 스스로의 달리기 패턴 등이 축적돼,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점도 장점이다. 마라톤 완주에 대한 소감을 밝히거나 코스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등 참가자들 간 소통도 가능해, 마라톤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MMH에는 6천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